


지혜 깊어지는 건강 > 지도 밖에서 만나는 건강

이현미 사진 글은 김은영





# 100년 전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굽어굽이 길을 내 군산 구불길을 가다

11월은 군산이 제격이다. 금강과 서해, 호남의 비옥한 평야를 끼고 있는 곳이라서가 아니다. 걷기 좋은 군산 구불길 때문도 아니다. 호남의 비옥한 평야에서 생산된 쌀과 소금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던 일제 강점기의 가슴 아픈 기억이 남아 있는 곳, 근현대사의 이름이 유물처럼 남아 있는 땅. 군산은 스산한 11월과 어울린다.

## 100년의 시간이 멈춘 흔적 자욱한 곳

군산은 오래된 영화나 소설 속에 존재할 법한 풍경이 묻어나는 도시다. 예스러운 풍경, 낡고 이국적인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는 골목길엔 100년의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진다. 1898년 개항된 이래 군산은 호남에서 생산된 곡물의 수출지로, 또 일본에서 들어오는 소비재들의 수입항으로 역할을 하였다. 발걸음은 옛 조선은행(국가지정등록문화재 제374호)으로 향한다. 지금은 다소 볼품없는 규모지만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군산에서 가장 규모 있는 건축물로, 1823년에 독일인이 설계하고 중국인들이 지은 건물인데, 동판을 이어 붙여 일본무사의 투구처럼 뾰족하게 만들었다는 지붕이 인상적이다. 언제 붙였는지 모를 '플레이보이' 간판이 우스우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다. 조선은행 안쪽 길로 들어가면 여전히 일본풍의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현 군산세관 앞에는 일본강점기 때 지어져 사용되었다던 구 세관(도지정기념물 제87호) 건물을 볼 수 있다. 양호하게 보관되어 있는 일본식 건물이다. 관리인이 있을 때는 안에 들어가 전시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당시 일본인들은 군산에 그들만의 주거공간을 만들었다. 월명동과 신흥동, 영화동 일대가 바로 그곳이다. 오래된 일본식 가옥들이 동네를 이뤘다. 내항에 근접한 월명동과 신흥동, 영화동 일대는 일본인들의 배타적인 주거공간이었다. 특히 신흥동 일대는 당시 군산 시내 유지들이 거주하던 부유층 거주 지역으로 100여 채의 일본식 목조건물들이 여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히르쓰가옥은 일본 무사의 고급주택을 그대로 본떠 지은 목조주택으로 가옥의 보존상태가 우수하다. 부엌과 방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 실내의 모든 목재는 백두산에서 가져다 지은 것이라고 한다.

## 군산 속 작은 일본, 그리고 군산을 내려다보다

군산초등학교를 지나 오른쪽에 있는 월명산 동국사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이다. '일본 문화 청산'의 일환으로 해방 이후 500여 곳의 일본 사찰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인데, 동국사는 그 와중에 용케 살아남아 1970

년 선운산에 증여되었지만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금 동국사의 부처는 일본 사람들이 모시던 부처를 모실 수 없다며 김제 금산사 대장정에서 가져온 것이다. 현재는 등록문화재 64호로 지정되어 '군산 속의 작은 일본'을 엿볼 수 있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일본 에도시대 건축양식으로 지은 사찰의 외관은 수수하다.

군산 시민들이 사랑하는 월명공원에 오르면 군산 앞바다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다. 언덕 너머 왼편으로는 해망동이라는 오래된 동네가 있다. 2006년에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을 전체가 미술관으로 꾸며졌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곳은 영화 '타짜'의 배경으로 등장한 곳이기도 하다. 해망동을 둘러 아래로 내려오면 군산항과 시내를 더 가깝게 잇기 위해 일제가 만든 해망굴을 지나게 된다. 옛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 구불구불 걸어볼까 군산 구불길

이전의 군산은 이렇다. 그렇다면 2011년의 군산은 어떨까. 여전히 서해바다와 금강이 있는 곳. 근대사회의 흔적이 짙게 남은 곳. 그리고 이제는 '구불길'이 있는 곳이다. 구불길은 이리저리 구부러진 모양을 표현한 '구불구불'이란 뜻과 '오래 머무를 구(久)와 '풀 우거질 불(弗)자의 한자 표기를 사용했다. 구불길은 현재 10개 노선 188km 구간이 나 있다. 1코스는 비단강길, 2코스는 햇빛길, 3코스는 큰들길, 4코스는 무슬뫼길, 5코스는 물빛길, 6코스는 달밝음길, 6-1코스는 탁류길, 7코스는 새만금길, 8코스는 고군살길이다. 구불길 10개 노선 중에서 8~10코스는 아직 조성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1. 당시 일본인들은 군산에 그들만의 주거공간을 만들었다. 월명동과 신흥동, 영화동 일대가 바로 그곳이다.
2. 월명산 동국사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이다.
3. 일본강점기 때 지어져 사용되었다던 구 세관(도지정기념물 제87호) 건물을 볼 수 있다.





예스러운 풍경. 낡고 이국적인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는 골목길엔 100년의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진다. 1898년 개항된 이래 군산은 호남에서 생산된 곡물의 수출지로, 또 일본에서 들어오는 소비재들의 수입항으로 역할을 하였다.





군산이 항구인 만큼 구불길 중에는 바다를 끼고 걷는 길, 바다를 조망하며 걷는 산길이 많다.

길은 금강 하구에서 시작해 군산 시내를 한 바퀴 돌아 나와 새만금 방조제까지 이어진다. 구불 1길은 금강 제방을 따라 18.7km 이어진 길이다. 쌀쌀한 계절이지만 강바람 맞으며 걷는 재미 역시 쓸쓸하다. 탐조 회랑을 지나 상류 쪽으로 걷다 보면 제방 위에 세운 정자가 나타나는데 이 계절이면 정자 위를 날아다니는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를 볼 수 있다. 철새가 날아든 이때에만 볼 수 있는 모습이므로 놓치지 말자.

### 군산에 갔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우리나라 최초의 빵집에서 맛보는 단팥빵

군산에는 1945년 문을 연 뒤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빵집 '이성당'이 있다. 이성당의 뿌리는 일제 점령기인 1920년대 일본인이 운영하던 '이즈모야(出雲屋)'라는 화과점인데 해방 직후 한국인 이 씨가 인수해 '이(李)씨 성(姓)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빵집(堂)'이라는 뜻으로 간판을 바꿔 달은 것. 이성당의 별미는 100% 쌀가루 반죽에 부드러운 단팥을 넣은 단팥빵. 아침 7시 반부터 3시간마다 나오는 단팥빵은 나오기가 무섭게 팔리고 있다.

군산이 항구인 만큼 구불길 중에는 바다를 끼고 걷는 길, 바다를 조망하며 걷는 산길이 많다. 그리고 4코스는 옥산저수지를, 5코스는 옥산저수지와 은파관광지를, 7코스는 안골·은골 저수지를 지난다. 옥산저수지를 지나는 4코스는 단순하다.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총길이는 5.5km로 험하지도 않아 2시간 반이면 충분히 걷는다. 이 중에서 핵심 구간이라면 단연 6-1코스인 '탁류길'이다. 탁류길은 군산 근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군산 도심과 내항을 잇는 코스다. 낮익은 거리도 많이 등장한다. 영화 '타짜'와 '장군의 아들'에서 익숙한 집과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남녀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골목도 나온다.

군산항에서 시내 쪽으로 걸음을 돌리면 6코스를 만난다. 이 길에서 꼭 들러야 할 곳은 경암동 철길 마을. 기찻길과 붙어 있는 일렬의 판잣집이 아득하고 서글픈 풍경을 자아내는 마을이다. 아직 판잣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 관광지의 느낌보다는 서글픈 삶을 마주하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이곳 철길에 기차는 다니지 않는다. **MEDI<sub>CHECK</sub>**